

문화 & 식



송춘희씨 찬불가 5집

불자가수 송춘희법사가 4집에 이어 3년만에 5번째 찬불가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펴냈다.

또 법회순서대로 찬불가를 따라할 수 있도록 삼귀의, 예불가, 반야심경, 청법가, 새범우 환영가, 발원문(세인스님 독경), 사후서원, 산회가 등의 노래를 삽입해 놓았다.

류영수씨 사진전



류영수씨(경희대 사진과 강사)가 6~11일 서울 삼성포토갤러리에서 '깨달음을 찾아서' 사진전을 갖는다.

류씨는 "이 사진기록은 먼 타국에서의 한인 사찰과 교포불자들의 모습이지만 어쩌면 스님을 통하여 나를 보았고 교포불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한국불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찬불음성공양 경연

대구광역시신도회가 주관하는 제5회 찬불가경연대회가 29일 오후 3시 대구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독창 중창 합창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가자격은 개인, 가족, 사찰신도회, 합창팀, 신행단체 등. 참가신청 4월 15일까지. (053)253-2886

桐寺址 목탑자리나 금당자리나 "정밀조사해야 안다" 관련학자 공통 견해

"하남시 동사지(桐寺址)에서 황룡사 9층목탑보다 더 큰 목탑지 발견." 사실이려면 우리나라의 불교사 내지 건축사를 다시 써야 하는 일대 사건이다.

황룡사지보다 규모가 크다고 했으니 조성연대도 삼국시대로 올라간다. 통일신라시대로 내려오면서 석탑이 주류를 이루고 목탑의 규모도 훨씬 작아지기 때문이다.

88년 동국대박물관은 현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소재하는 동사지를 발굴조사하고 황룡사 금당지와 거의 맞먹는 유구를 발견했으며 중앙에 불상의 대좌로 보이는 8각기단부를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목탑지란 주장은 이 지역 향토사학자들과 일부 학자에 의해 꾸준히 제기됐다. 장충식교수(동국대)는 8각기단부 중앙에 노출돼 있는 돌 덩어리가 목탑의 심초석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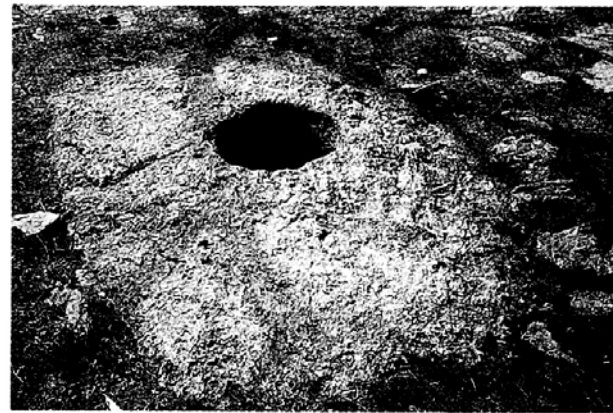
사리공의 형태가 뚜렷하고 심초석 주변에 주춧돌로 보아 황룡사와 같은 기단 구조의 목탑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8각기단부 중앙 돌 목탑의 심초석이다"

- 장충식 교수

장충식 백제문화연구소장은 탑의 중심에 있는 심초석에서 남쪽 끝 주춧돌까지의 거리가 동쪽 끝 주춧돌까지의 거리가 각각 14m이므로 가로세로 28m인 7칸짜리 장방형의 목탑지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문명대학교수(동국대)는 △목탑지의 경우 정방형 아닌 것이 없는데 현재의 유구로는 정면 7칸 28.90m 측면 6칸 20.80m밖에 안되고 △이 곳을 목탑지로 비정할 경우 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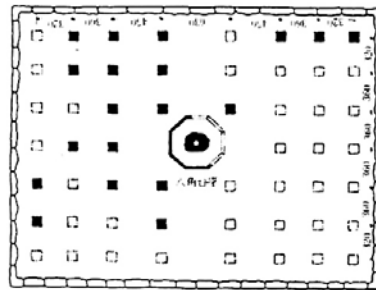
◇목탑의 심초석이라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유구. 중앙에 사리공이 뚜렷히 남아있다.

"정방형 아닌 목탑지는 없다"

- 문명대학교수

금당지가 있을 만한 곳이 없으며, 5층석탑과 이 자리가 동서 일직선상에 배치되는 점 등에서 오히려 금당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탑권위자와 불상권위자의 광범한 대립 가운데 관련 학자들은 자세한 언급은 피하면서 황룡사에 버금가는 동사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88년 동국대박물관이 추정하는 금당지. 정면 7칸 측면 6칸으로 중앙에 돌이 일고있는 유구가 있다.

명을 위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며 조만간 현장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기석 기자

"우리나라 현존철불 72구"

최인선교수 논문 발표 북한 개성博 1점 소장



◇도피인사 철조비로자나불 좌상.

우리나라 철불 중 현재 확인되는 것은 총 72구이며, 중부지방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인선교수(순천대 사학과)의 97학년도 한국교원대 박사학위 논문 '한국철불연구'에서 확인됐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당시 수도였던 경주에 철불이 한 점도 남아있지 않고 문헌기록에도 그 유래가 없다는 점.

9세기 철불의 양식을 분석해 볼 때 830년경 실상사 창건과 함께 조성된 실상사 철불이 우리나라 철불의 효시를 이루며, 통일신라시대의 철불은 대개 현실의 인간상에 가까운 현실주의로 표현된다.

"안양 삼성산 일대 고려초 불교문화 산재"

단국대, 지표조사 보고

안양시 삼성산 및 관악산 일원에 산재한 불교유적에 대한 지표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단국대 사학과가 96년 10월부터 98년 2월에 걸쳐 17개월간 조사한 안양지역 불교유적은 삼막사를 비롯 안양사, 영불암, 불성사, 반월암, 망월암, 망해암 등 7개 사찰, 삼막사 3층석탑, 망월암 3층석탑, 망해암 석조여래좌상 등은 고려초 삼성산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활발히 전개됐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특히 마애부도는 다른 지역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돼 안내관을 설치, 이 유적이 스님의 부도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막사 지장보살좌상, 망해암 석불입상 등과 더불어 동국대석굴(일명 원효굴)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동안 세간에 구전되던 안양사 7층전탑(소실)이 고려 최영장군에 의해 증수됐던 사실도 문헌에서 확인됐다.

불심시심 (123) 모든 생각 초연해 晴日宜春服 맑은 날 봄옷이 마땅해 東風二月天 봄바람 부는 2월의 날씨

인약(仁嶽 1746~1796)화상이 지은 '망회정에 노닐며(遊忘懷亭)라 한 시이다. 화상의 이름은 의침(義沾)이요, 자가 자의(子宜)요, 인약은 호이다.

박상룡 씨 "불교의 우주관 소설에 담을터" 영화 '유리'의 원작(죽음의 한 연구)의 작가인 소설가 박상룡(58)씨가 69년 캐나다로 출적 이민을 떠났다가 29년만인 최근 귀국했다.

한국불교법사 연합회 발기인 총회 한국불교증흥을 위해 불교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인식하여 현장 포교하시는 법사님들을 모시고 한국불교법사 연합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총회를 갖고자 하오니 법사 여러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교리강좌 안내 먼저 대승불교연구원을 개원하였음을 사부대중에게 보고하고 인사드립니다. 본 연구원은 대승교리를 연구하여 불서를 간행하고 대승보살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 만든 화제의 책!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인회는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미술가 모임으로 전국 각지의 사찰에 많은 작품들을 조성, 봉안해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품전과 주제전,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 전통불교미술발전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